

제 1 교시

2022학년도 임권의 하프 모의고사 9회차 문제지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모의고사는 틀리려고 보는 거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희파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은 ‘승호’의 독서 기록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읽은 책	멋진 신세계		
작가	올더스 헉슬리	읽은 기간	2013. 3. 2. ~ 3. 6.
독서 활동 기록	<p>㉠ 며칠 전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나는 과학 기술이 참된 인간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를 읽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과학 기술의 부정적 부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보고, 나는 이상적인 인류의 미래상을 그린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p> <p>이 제목은 윤리 시간에 배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떠올리게 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연 멋진 신세계가 가능할까?’,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을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행복할까?’ 등의 의문이 떠올랐다.</p> <p>‘멋진 신세계’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안락한 사회였지만, 이 세계의 주민들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에 의해 태어나 부모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작가에게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없앴습니까?’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작가가 ‘멋진 신세계’를 그렇게 그려 놓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해 나처럼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는지도 궁금했다. 그런데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문제는 ‘멋진 신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세밀하게 이해하며 읽지 않은 나의 독서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었다.</p>		
	느낀 점	<p>작가는 과학 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 또한 과학 기술을 맹신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했다. 그리고 ㉡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p>	

1. ‘승호’의 독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전 활동
  - 책의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했다.
  -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책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었다. .... ①
- 읽기 중 활동
  - 작가의 의도를 추리하면서 작가와 의사소통하는 독서를 했다. .... ②
  - 독서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서 활동을 점진하고 조정했다. .... ③
- 읽기 후 활동
  -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했다. ... ④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았다. ... ⑤

2. ㉠과 ㉡에 주목해 ‘승호’의 독서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승호’는 ㉠의 독서 상황을 고려해 ㉡과 같이 독서 활동의 의미에 대해 서술했군.
- ② ‘승호’는 ㉠의 독서 목적에 따라 참고 자료를 조사해 ㉡과 같은 결론을 내렸군.
- ③ ㉠에 나타난 ‘승호’의 가치관이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겠군.
- ④ ㉠에 제시된 경험 때문에 ‘승호’는 ㉡과 같이 책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한 것이겠군.
- 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승호’는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군.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Ⅱ」 -

(나)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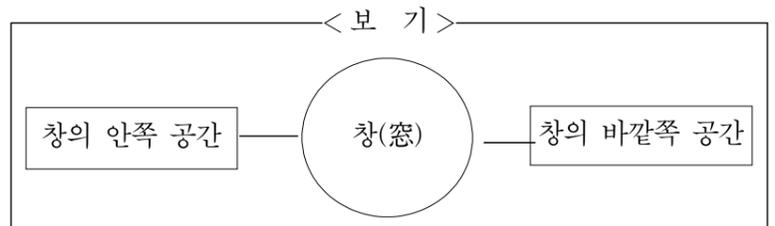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 -

3. (가)~(다)를 <보기>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窓)의 안쪽 공간에 있다.
- ②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 (다)와 달리,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창(窓)은 (가), (다)와 달리, 창(窓)의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 ④ (나)의 화자는 (가), (다)와 달리, 창(窓)의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⑤ (가), (나)의 창(窓)은 (다)와 달리, 창(窓)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사물의 속성을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5. <보기>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 ①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성에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보기>와 (나) 모두 '성에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에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예찬적인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은 '자연적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항원)가 침투하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면역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세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제거하는 '킬러 T세포'(killer T cells)이다. 킬러 T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킬러 T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몸속 곳곳을 순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림프세포의 일종이다. 림프세포에는 킬러 T세포 말고도 헬퍼 T세포와 B세포가 더 있다. 헬퍼 T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B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체를 생산하게 하고 이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파괴하게 한다. 반면 킬러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한편 킬러 T세포는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킬러 T세포에게 발각이 되면 죽게 된다. 그렇다면 킬러 T세포는 어떤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까?

면역 시스템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세포 표면에 있는 'MHC(주요 조직 적합성 유전자 복합체)'이다. MHC는 꽃게 집게발 모양의 단백질 분자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을 세포 표면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본래 세포 속에는 자기 단백질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원래 없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단백질과 바이러스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펩티드\* 조각으로 분해되어 세포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MHC와 결합해 세포 표면으로 배달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킬러 T세포가 활동한다. 킬러 T세포는 자기 표면에 있는 'TCR(T세포 수용체)'을 통해 세포의 밖으로 나온 MHC와 펩티드 조각이 결합해 이루어진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MHC와 결합된 펩티드

가 자기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자신이 만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인식하고 그냥 지나친다. 하지만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바이러스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활성화되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단백질을 감염된 세포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T세포의 공격을 받은 세포는 곧 죽게 되며 그 안의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 몸의 이곳저곳에서는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킬러 T세포가 병든 세포를 찾아내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또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짜인 구조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펩티드: 단백질 분자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면서 보다 작은 유기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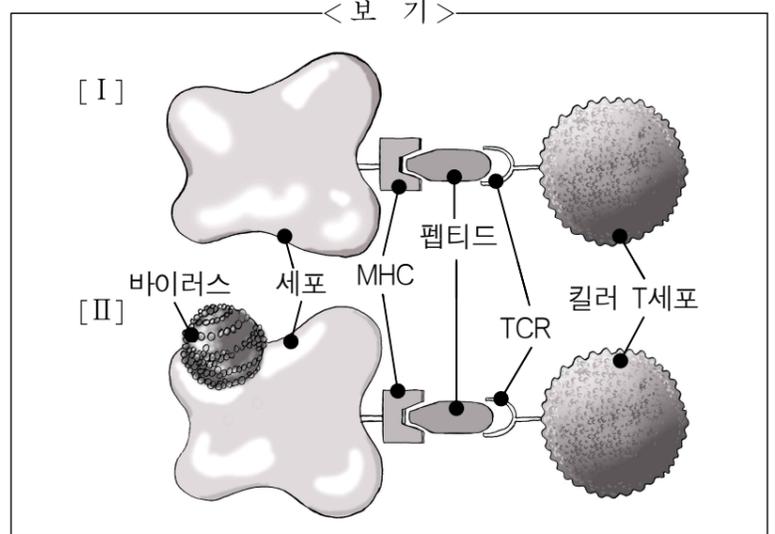
7.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8. 윗글을 과학 잡지에 기고하고자 할 때,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면역 시스템을 가진 우리 몸  
- 바이러스 퇴치의 첩병, 킬러 T세포
- ② 생체 신비의 현장인 우리 몸  
- 신기한 생체 현상을 만드는 마술가, 킬러 T세포
- ③ 힘센 바이러스들의 각축장인 우리 몸  
- 바이러스들 간의 충돌을 막는 중재자, 킬러 T세포
- ④ 세포들의 삶과 죽음의 공간인 우리 몸  
- 세포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관리인, 킬러 T세포
- ⑤ 자립적 유기체인 우리 몸  
- 외부의 도움 없이 세포를 생산하는 활동가, 킬러 T세포

9.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한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의 '킬러 T세포'는 세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군.
- ② [I]의 'MHC'가 이동시킨 '펩티드'는 세포 안의 자기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겠군.
- ③ [II]의 세포는 '킬러 T세포'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소멸되겠군.
- ④ [II]의 '펩티드'는 세포 속 바이러스가 그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겠군.
- ⑤ [I], [II]의 'TCR'은 'MHC'와 '펩티드'의 결합 구조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기 변동은 실질 GDP\*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 주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하여 상승과 하락을 보여 주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 일어나는 주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 합리적 기대란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루카스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해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경기 역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되었는데, 이를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문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실질 GDP: 물가 변동에 의한 생산액의 증감분을 제거한 GDP.
- \* 총수요: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
- ③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경기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주체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④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
- ⑤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12. ㉠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 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할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 ①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려
- ③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늘리려
- ④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 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13.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마 후에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② 그녀는 싸움이 일어난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떠났다.
- ③ 그는 친구의 말에 화가 일어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 ④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동아리의 위기를 해결하였다.
- ⑤ 체육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승리에 대한 열기가 다시 일어났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두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거주춤 서 있었다. 영달이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땀 만한 것들을 끌어 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 “**댁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때는 풀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영달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중략)

그들은 일곱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과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

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오?”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구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먹었다. 백화가 자기 뚝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엽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우?”

㉢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